



Fig. 8. Effects of ecotypes and planting dates on number of commercial single bulb in the cultivation of garlic

중간형(DL01)은 2월 23일의 춘파가 19천개/10a였고, 10월 26일의 추파가 17천개/10a로 서로 비슷하였으며, 난지형(대서종)은 2월 23일의 춘파재배에서 상품성 단구개수가 15.8천개/10a로 비교적 많았다. 10월 26일의 추파에서는 인편이 99%가 분화되어 상품성 단구의 개수가 매우 적었다.

파종시기에 따른 생태형별 상품성 단구의 생산은 생태형 간 확실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상품용 외통마늘의 비율이 2월 15일의 파종 이후에는 높아지다가 2월 25일의 춘파를 정점으로 다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Hwang, 2008)는 결과와 비슷하였다.

생태형 및 파종시기에 따른 수량은 Table 24와 같다. 총수량은 생태형별로 한지형(단양종)이 592 kg/10a로 가장 높았다. 중간형(DL01)과 난지형(대서종)은 각각 436 kg/10a, 404 kg/10a로 한지형보다 낮았는데, 두 생태형 간의 유의성은 없었다.

파종시기 간에는 파종이 늦어질수록 수량이 감소되어 4월 5일의 춘파에서는 211 kg/10a로 매우 적었다. 이는 춘파의 파종시기별 수량은 2월 25일의 춘파가 가장 많았고, 파종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수량의 감소를 보였는데, 특히 4월 5일의 춘파와 4월 25일의 파종이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Shin(1997)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이였다.

파종시기의 지연에 따른 총수량 감소 정도는 중간형(DL01)과 난지형(대서종)이 한지형(단양종)보다 심했다. 2월 23일의 춘파 대비 4월 5일 춘파의 총수량 비율은 한지형(단양종)이 58.4%, 중간형(DL01)과 난지형(대서종)은 모두 25.0%로 상당히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파종시기가 늦어질수록 한지형이 중간형과 난지형 보다는 구 비대 개시부터 수확까지의 구 비대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한지형(단양종)은 분구율이 높았던 만큼 분구수량이 많았는데, 총수량의 93%를 차지한 반면, 중간형(DL01)은 분구율이 저조하여 총수량의 17%에 불과하였다. 단구수량은 분구수량과 부의 관계로 한지형(단양종)은 34 kg/10a로 매우 저조한 반면, 중간형(DL01)은 320 kg/10a로 가장 수량이 많았고, 총수량의 83%를 차지하였다. 파종시기별 단구수량은 총수량의 양상과 달리 2월 23일의 춘파가 10월